



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악화,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양호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4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.56%로 2011년 12월 말 1.18%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.40% 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.

-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 4,000억 원으로 가계대출 451조 1,000억 원의 22.7%, 주택담보대출 잔액 305조 6,000억 원의 33.5% 수준임.
- 2012년 3월 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1.21%로 전년동월 0.91% 대비 0.3%p 상승하였으며 부실채권 잔액은 1조 2,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9,000억 원 대비 33.3% 증가하였음.

■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과 이로 인한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의 분양가 인하 관련 집단 분쟁,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때문임.

-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양가 인하 관련 집단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.
- 2012년 4월 말 현재 분쟁 사업장은 총 94개이며,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사업장은 28개임.

■ 해외 IB들은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은행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지급보증 문제가 금융권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.

- Nomura 등 해외 IB들은 국내 집단대출 중 이미 입주가 완료된 잔금대출 비중이 66.4%로 크고, 시행·시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비중이 75.6%로 높아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은행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음.¹⁾

1) 국제금융센터(2012. 6. 25), 「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이 은행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」.

-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부진이 계속될 경우 집단대출의 보증을 선 시행·시공사의 경영 악화가 은행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,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이 은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.

■ 한편, 2012년 4월 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104조 2,000억 원으로 나타났고, 2012년 1월 이후 전월대비 증가 추세 둔화²⁾가 지속되고 있음.

- 가계대출 잔액은 72조 4,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3,400억 원(0.48%) 증가하였음.
 - 보험계약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각각 44조 원, 22조 1,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2,400억 원(0.54%), 1,200억 원(0.55%) 증가하였음.
- 기업대출은 31조 8,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,800억 원(0.55%) 증가하였음.

■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³⁾은 0.80%로 전월 대비 0.04%p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0.29% 하락하였음.

- 가계대출 연체율은 0.52%로 전월 대비 0.02%p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0.25%p 하락하였음.
 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.55%,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보험계약대출 등)의 연체율은 0.50%로 각각 전월 대비 0.02%p 씩 상승하였음.
- 기업대출 연체율은 1.44%로 전월 대비 0.09%p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0.35%p 하락하였음.

■ 보험회사의 대출채권은 보험계약대출⁴⁾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고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함.

(금융감독원 보도자료, 국제금융센터 Global view 외)

2)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의 전월대비 증가추세.

: '12. 1월 0.15조 원 → '12. 2월 0.61조 원 → '12. 3월 0.81조 원 → '12. 4월 0.52조 원 ('12. 3월 증가규모는 농협을 제외하고 산출).

3) 1개월 이상 원리금연체 기준임.

4) '12. 4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42.3%이 보험계약 대출임.